

'94年 새해를 맞이하여...



甲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에도 국군장
병과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
러분의 가정에 萬福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회에서 발행하는 국방전문지 月刊〈國防과 技術〉이
금년 신년호로 지령 179호, 창간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지난 79년 1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월간〈國防과 技術〉은
그동안 국내외의 국방관련 소식과 방산업체의 동향, 국방과
학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自主國防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일조하여 왔습니다.

創刊 15週年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면서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편집관계자 여러분과, 기고와 취재
협조, 광고게재 등을 통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인사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대초 태동한 우리 방위산업은 2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둬하면서 자주국방의 건설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戰爭抑止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의 탈냉전 조류속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국방비삭감을 주장하는 등 국방에 대한 경시풍조마저 일고 있어 국가자존의 핵심인
방위산업발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동·서 양진영의 냉전종식은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힘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여 지역
분쟁의 소지가 확대되고, 군사력의 질적 경쟁을 유발, 국방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방위산업도 고도첨단무기개발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방산업계도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첨단기술개발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전문잡지로서 역할을 다해온 月刊〈國防과 技術〉도 창간 15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보의식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방위산업발전과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원해 주신 관계당국과 방산업계,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축
원합니다.

1994년 1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柳 纘 佑